

성장기술 프로그램의 보급 및 활용에 관한 연구

최명민*

[요약]

그동안 사회복지 임상실천 분야에서 주로 관심을 기울여 온 것은 개입방법의 개발과 효과성 측정 연구였다. 반면 이러한 연구 결과물이 어떻게 현장에 보급되고 활용되는지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결과적으로 연구와 실천간의 괴리를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최근 외국에서는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이론과 실천, 또는 학문과 현장을 잇는 중요한 기체로서 지식 및 기술의 보급과 활용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본 연구자가 프로그램 개발에 이어 현장보급 노력을 기울여 온 성장기술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현장보급 과정과 활용현황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보급과 활용에 관한 기존 이론 및 모델들을 정리하고, 그 중 Herie와 Martin의 연구-실천 가교 모델에 의거하여 성장기술 프로그램의 현장 보급과정 및 활용 상황을 추적 조사하고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성장기술 프로그램 보급과정의 문제점으로는 구체적인 전략의 부재, 계획성 부족으로 인한 즉흥적인 대응, 초기 보급 대상자에 대한 허술한 파악 등을 도출할 수 있었다. 그리고 효과적인 보급과 활용을 위해서는 적절한 모델을 선택하고 그에 따라 보급과정을 적용하고 실천할 것, 프로그램 개발과정부터 보급에 대해 염두를 두고 진행할 것, 프로그램 개발 뿐 아니라 현장 피드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 그리고 사회복지 교육 및 연구에서 전과과정에 대한 부분을 강화할 것 등을 제언하였다.

이를 통해 몇 가지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보급 및 활용에 대한 중요성을 제시할 수 있었으며, 성장기술 프로그램의 현장 활용성도 파악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보급과 활용에 대한 논의들은 국내에서 진행되는 연구의 전과 뿐 아니라 그동안 외국으로부터 도입해온 개입방법들을 한국 상황에 맞게 토착화하기 위하여 앞으로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주제어 : 보급, 활용, 성장기술 프로그램, 현장 피드백

*이화여자대학교 강사

1. 서 론

사회복지학은 실천학문으로 일컬어지지만 실제로 사회복지와 관련된 연구들 중 임상사회복지실천을 다루고 있는 연구는 많지 않다. 우리나라에서 지난 20년간 시행된 사회복지 관련 연구 중 임상실천과 관련된 연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0%미만이었다. 특히 개입의 효과성을 살펴보는 논문은 전체의 1.28%에 불과하다는 보고가 있었다(양옥경, 2000). 그러나 이들 연구들도 대부분 프로그램 개발이나 프로그램 실시 이후 효과성을 분석한 것들로서, 연구를 통해 개발된 모델이 지속적으로 사용되면서 효과성 검증으로 이어지는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하였다. 즉, 새로운 개입모형이나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그 효과성을 검증한 연구들은 적은 수라도 있지만, 그 이후에 이것이 현장에서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효과성 있게 활용되고 있는가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한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에 대한 연구가 1회성으로 그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첫째는 1회 연구로 끝나는 프로그램은 연구와 실천의 괴리를 간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Epstein(1996)은 연구자와 실천가간의 벽에 대해 언급하면서, 연구자들은 실천가들이 과학에 근거한 기술사용이 부족하다고 비판하는 반면, 실천가들은 기존 연구들이 임상 핵심이나 변화과정은 간과한 채 한정적인 연구상황에만 초점을 두어 실질적인 정보제공에 실패하고 있다고 비판한다고 하였다. Herie와 Martin(2002)은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연구와 실천의 관계가 한 방향으로 즉 연구에서 실천으로만 흐르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사회복지에서 지속되어 온 연구와 실천간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험적 실천 연구들을 통한 현장 검증 연구 뿐 아니라 이를 실천 현장에 전파하고 활용하도록 하는 기제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현장으로부터 적절한 평가와 피드백을 받을 때 연구와 실천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그 괴리를 해소할 수 있다고 하였다.

둘째는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성 검증이 한번으로 그칠 때 그 프로그램의 활용성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Fischer(1993)는 개발연구노력의 보급이 한번으로 그친다면, 그것이 적절히 사용된다고 보장할 수 없으며, 효과성이 단 한번만 입증된 것이라면, 현실의 실천에 통합되었다고 보장할 수 없다고 하였다. 연구를 통해 개발되고 발표된 프로그램은 그 개발자 뿐 아니라 다양한 실무자들에 의해 응용되고 활용될 때 비로소 생명력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천연구의 궁극적 목적은 그 연구를 현장에 전파하고 활용하도록 하는 것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연구결과의 보급과 활용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프로그램 개발 연구들 중 많은 부분이 발표 이후에 체계적인 보급 과정을 거치지 못 하여 실무에서 활용되지 못 하거나 잊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또한 개발된 프로그램이 실무에서 활용되더라도 그에 대한 현장의 피드백을 수집하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 가는 예도 찾아보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자는 그동안 성장기술 프로그램(Growing up Skills Program)을 개발하고 개인적 차원에서

나름대로 이를 보급하고 현장 피드백을 수집해 보고자 노력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이론적 기반 및 체계성의 부족으로 많은 한계를 접하게 되었다. 이에 좀더 효과적인 보급방법을 모색하던 중 보급과 활용에 관련된 기존 이론 및 모델을 접하고 이에 의거하여 이제까지의 보급과정을 체계적으로 평가, 분석하고, 현장의 활용현황과 반응을 파악해 보기로 결정하였다. 즉, 이 연구는 기존 모델에 따라 보급이 진행된 사례를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개인적 차원에서 진행된 보급과정을 관련이론에 의해 추적 조사 및 분석함으로써 문제점 및 시사점들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효과적 보급을 위한 제언을 도출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더불어 프로그램에 대한 현장의 피드백을 수집하여 활용성 증진을 위한 후속연구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1) 프로그램의 개발, 효과성 검증, 그리고 보급 및 활용

보통 프로그램의 개발과정은 분석, 설계, 개발 및 평가의 과정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임상사회복지 개입을 설계 및 개발(D&D)을 통해 체계화한 Thomas(1984)는 개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활용가치를 증명한 후에는 프로그램을 현장에 보급(dissemination)하고 전파(diffusion)하여 이를 실천현장에 적용(adoption)하는 과정이 따라야 한다고 하였다. 만약 이 보급과 적용의 단계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프로그램의 개발은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프로그램의 개발과정에는 분석, 설계, 개발, 평가와 더불어 '보급 및 적용'을 포함해야 한다며 이를 통칭하여 개발 연구 및 활용(Developmental Research & Utilization : D, R, & U)이라고 하였다. 즉, 프로그램의 개발에는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평가하는 과정 뿐 아니라 지속적인 현장 적용의 과정과 이를 통해 프로그램을 보완해 가는 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보급 및 활용에 초점을 두고 발전되어온 전과이론에서는 과거에는 전파와 적용에만 관심을 가져왔지만, 이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과과정을 개발과정의 연속선상에서 부분적 요소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Rogers, 1995). 전파와 적용은 그 자체로서 독립적인 과정이 아니라 그 이전의 개발과정으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는 연속적 과정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프로그램 개발을 강조해온 영역에서도, 그리고 보급과 적용을 강조해온 영역에서도 서로의 영역에 대한 연속성 있는 이해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Herie와 Martin(2002)은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사회복지실천 연구에서는 이러한 이슈가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었다고 하였다. 미국에서는 60년대 후반과 70년대 초에 개입 효과성 검증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경험적 실천 운동(empirical practice movement)'에 따라 개입방법의 개발과 평가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었으나, 그 대상은 주로 단일사례연구였기 때문에 개입의 효과성 평가 및 지식 발전에 기여하는 측면에서 볼 때 충분치 않았다고 하였다. 또한 그 뒤를 이어서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개입 설계 및 개발(D&D)은 현장 실험연구에 기초한 개입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 주었지만, 1차적

초점이 개입설계방법과 그 평가에 있었기 때문에 현장 보급 및 활용의 구체적 기제는 밝혀내지 못했다고 하였다. 서론에서도 언급했듯이 한국의 사회복지 영역에서도 이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태로 관련문헌을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일찍이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하여 그 보급과 활용에 대해 언급했던 Tarde는 1903년에 ‘연구개발자들은 100개의 프로그램이 개발되었을 때 왜 10개의 프로그램은 널리 활용되고 90개의 프로그램은 잊혀지는가를 알아야 한다고 하였다(Martinez-Brawley, 1995에서 재인용). 그러나 그 이후 100년이 지나도록 사회복지 영역에서는 그 기제에 대해서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으며 이것이 연구와 실천 간의 괴리를 심화시키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연구가 부족한 것은 사회복지 실천 지식 및 기술의 특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상담개입과 같은 비 구체화된 기술의 전파는 학습과정을 포함하며 특성을 규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연구대상이 되는 경우가 적다는 것이다(Becker, 1991).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최근에는 연구를 통한 개발 및 발견 내용을 현장의 실무자들에게 보급하는 과정과 이를 적용하며 활용하는 기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다음은 이러한 이슈와 관련된 기존의 논의들이다.

2) 보급 및 활용에 관한 이론과 모델

“그 연구가 중요한 것이라면 반드시 활용되어야 한다”는 말이 있다(Rehr, Morrion, & Greenburg, 1992). 이는 연구결과의 보급 및 실천 적용을 강조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보급 및 활용과 관련된 대표적인 이론으로서 전파이론과 사회마케팅 이론과 더불어, 사회복지 분야에서 개발된 연구실천가교모델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1) 전파이론(Diffusion Theory)

전통적으로 어떤 지식의 전파나 기술의 이전에 대해 관심을 가져온 영역은 농업, 군사 및 교육 분야였다(Backer, 1991; Rogers, 1983; 1995). 이러한 지식전파나 기술이전 과정을 이론적으로 공식화한 Rogers(1983; 1995)는 전파란 ‘새로운 것(innovation)이 사회체계 내 구성원들 사이에서 시간 경과에 따라 어떤 경로로 의사소통 되는 과정’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의사소통과정에 초점을 두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가 담긴 메시지가 관심을 얻게 되며, 이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서로 정보를 창출하고 공유함으로써 상호 이해에 도달하게 된다고 하였다. 그는 새로운 것이 개발되는 과정을 ‘① 문제나 욕구에 대한 인식 → ② 조사 → ③ 개발 → ④ 의사소통 → ⑤ 전파와 적용 → ⑥ 결과’의 6단계로 제시하면서, 과거의 전파이론에서 5단계 이후에만 관심을 집중했던 경향을 비판하고 프로그램 개발과 전파과정의 상호관련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혁신적 지식과 기술의 적용을 결심하게 되는 과정을 ‘도입결정과정(Innovation-Decision Process)’이라고 명명하고, 개인이나 조직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새로운 프로그램의 적용을 결심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 과정모델은 다음과 같다.

- ① 지식(Knowledge): 새로운 것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 기능에 대해 기본적으로 이해하는 것.
- ② 설득(Persuasion): 우호적이거나 비우호적인 태도를 형성하는 것.
- ③ 결정(Decision): 적용 또는 거부에 대한 선택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것.
- ④ 실행(Implementation): 새로운 것을 실천에 투입하여 활용하는 것
- ⑤ 확인(Confirmation): 이미 정한 결정을 강화하거나 부적합할 경우 이전 결정을 반복하는 것.

한편 Davis는 현장에서 연구결과를 채택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들을 VICTORY의 틀로 제시하였다(Herie & Martin, 2002에서 재인용). 여기에는 조직의 가치(Value), 인지된 욕구에 부합할 새로운 것에 대한 유용한 정보(Information), 환경(Circumstance) 및 시점(Timing), 변화와 관련된 의무(Obligation), 저항(Resistance)이나 예견된 부정적 결과, 그리고 산출(Yield)이나 예견된 긍정적 결과 등이 포함되는데, Rogers는 이러한 요소들을 자신의 결정과정 단계로 통합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현장의 개인과 조직을 조사나 개발결과를 수동적으로 받기만 하는 대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활용 여부를 결정하는 대상으로 파악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 사회마케팅 이론 (Social Marketing Theory)

사회마케팅 이론도 새로운 아이디어나 지식의 전파에 대해 공급자보다는 소비자, 또는 사용자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다. 일찍이 Kotler와 Zaltman(1971)은 사회마케팅을 ‘사회적 아이디어의 수용성에 영향을 주기 위해 계획된 프로그램의 개발, 적용, 통제이며, 생산 계획, 가격, 의사소통, 배분 및 시장조사에 대한 고려가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원래 사회마케팅에서 관심을 가진 것은 가족계획, 산불예방과 같은 공공 영역에서의 아이디어 마케팅이었으나, 점차 의료나 사회 서비스 개발에 적용되면서 ‘상업적 판매와 광고 전략을 비 상업적 생산물, 서비스 및 아이디어를 촉진하기 위해 적용하는 것’으로 폭 넓게 정의되고 있다(Fine & Fine, 1986; Rothman, 1983). Stoner (1986)도 마케팅 개념은 사회서비스 활용하는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이들을 유지하며, 자원을 개발하고 서비스 제공자와 실천가에게 이슈와 혁신을 제공할 수 있는 유용한 전략이며 비영리 기관에도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 사회사업 영역에는 Fine와 Fine(1986)이 사회마케팅 이론을 적용하여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잠재적 수용자는 그 가치와 적용가능성에 기초하여 활용을 결심하는 소비자로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사회사업 실천가를 연구과정의 소비자로 지칭하기도 하였다.

사회마케팅을 4단계로 제시한 Geller(1989)의 모델은 다음과 같다.

- ① 시장 분석 : 표적 집단의 욕구, 특성, 경계를 규명하는 단계.
- ② 시장 분할 : 결과물을 특정 하위집단의 특수한 욕구에 맞게 다듬고 적용하는 단계.
- ③ 마케팅전략 : 전파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단계
- ④ 평가(자기보고) : 표적 집단으로부터 구조화, 공식화된 피드백을 받는 단계.

Geller(1989)는 특히 마케팅전략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로서 McCarthy의 4P(Produ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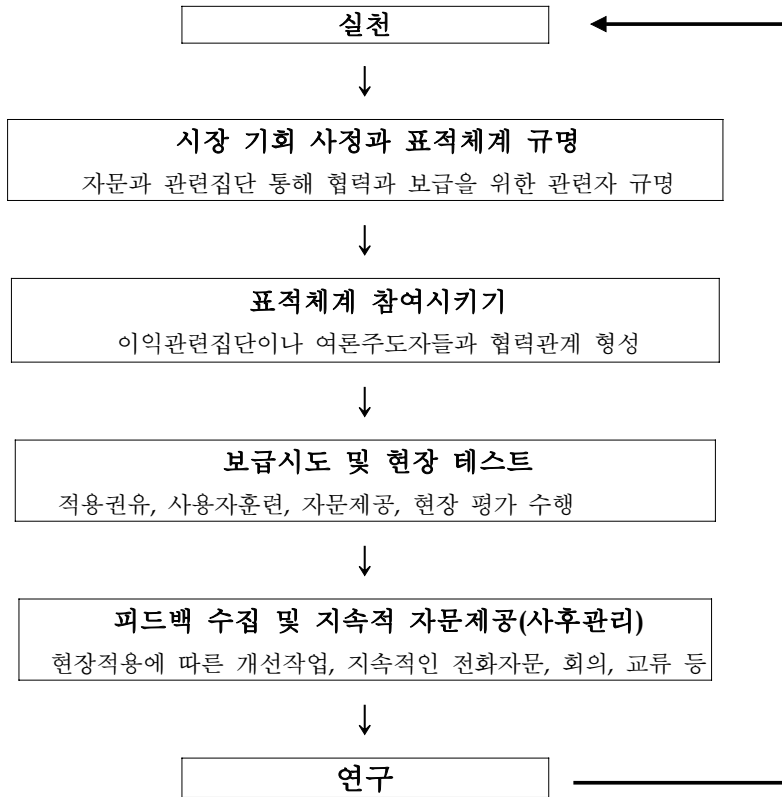
Promotion, Place, Price)와 더불어 정치적 요소(Politics)와 여론(Public opinion)을 포함시켰다. 그리고 각 단계에서의 자료수집에 있어서 객관적인 자료수집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제약으로 자기보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적하면서 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3) 연구-실천 가교 모델

연구-실천 가교 모델은 기존의 보급 관련 이론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이 이론들이 여전히 연구에서 실천으로 흐르는 한 방향에 집중되어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Chatterjee와 Ireys(1981)는 기술이전이란 연구자나 개발자로부터 실천가로 이동하는 일방통행이나 상하 개념이 아니며, 상호적이고 역동적인 지속적인 피드백의 고리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했으며, Backer(1991)는 지식전파, 기술이전은 지식이 보급되고 활용되며 그 과정으로 통해 이점과 단점을 발견되는 과정으로서 이를 통해 해당 정책과 실천이 다시 가치를 치며 발전해 가는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Herie와 Martin(2002)은 기존 이론들이 연구 개발을 보급하고 전파하는 과정을 제시해 줄 수는 있지만, 이것이 현장에서의 적용과 응용으로 이어져 다시 연구로 피드백 되는 사이클을 규명하는 데에는 부족한 감이 있다고 보고 현장 피드백 과정을 보완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는 OPTION(OutPatient Treatment In ONtario Services)이라는 알코올 및 약물중독 외래환자 대상 프로그램의 보급 및 현장 활용과정을 통해 조사에 기초한 치료보급에 대한 모델을 통합한 것이다.

그 내용은 다음 <그림 1>과 같다.

Herie와 Martin(2002)의 연구-실천 가교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은 정확한 표적체계 설정에 따른 체계적 보급 시도와 현장테스트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에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OPTION 프로그램의 보급을 위해 집중훈련, 사후 자문 및 현장 테스트 평가를 수행하고 일년에 걸친 현장 테스트의 결과에 의거하여 프로그램을 수정보완하고 보급을 위한 강점을 파악하였다. Herie와 Martin(2002)은 이 모델은 집중적인 인력 투입과 시간의 소비가 많으며 조사과정을 적용하는 데에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지만, 이러한 보급 전략이 제대로 수행될 때 성공적인 임상적용을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결론짓고 있다.



<그림 1> Herie와 Martin(2002)의 연구-실천 가교 모델

3) 보급 및 활용 관련 이론 및 모델 간 비교 고찰

Herie와 Martin(2002)의 모델은 연구와 실천 간 상호작용을 강조한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Rogers의 전파이론 및 Geller의 사회마케팅 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각 단계들은 서로 부합된다. 다음 <표 1>은 Herie와 Martin(2002)의 주장에 따라 각 해당 사항을 본 연구자가 표로 정리해 본 것이다.

<표 1> 지식 보급 및 전파에 대한 이론 및 모델 비교

Herie & Martin(2002)	Rogers(1983,1995)	Geller(1989)
실천		
① 시장기회 사정과 표적체계 규명		① 시장분석 ② 시장분할
② 표적체계 참여시키기	① 지식	③ 마케팅전략 ④ 평가※
③ 보급 시도 및 현장 테스트	② 설득 ③ 결정	
④ 피드백 수집 및 지속적 자문 제공 (사후관리)	④ 실행 ⑤ 확인	
연구 → 실천		

※ Herie와 Martin은 Geller의 평가 단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이 단계가 Herie와 Martin의 현장 테스트 및 피드백 수집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본 연구자가 배치한 것임.

이와 같이 Herie와 Martin은 자신들의 모델에서 제시된 단계들이 Rogers와 Geller의 모델에도 부합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Herie와 Martin의 모델은 Rogers의 모델보다는 Geller의 모델에 더 근접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Rogers의 모델은 전파이론 중 개인이나 조직이 적용 및 활용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 초점이 주어져 있는 반면, Herie와 Martin의 모델과 Geller의 이론은 모두 시장이라는 개념 위에서 공급자와 소비자 측면을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단, Herie와 Martin의 모델은 Geller의 모델 중 마케팅 전략 단계를 더 세분화하고 정교화하였고, 특히 현장 테스트를 통한 피드백 수집과정을 별도로 제시함으로써 조사과정을 좀더 부각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두 모델에서 각 단계를 설명하는 용어 중 Herie와 Martin이 사용하는 표적체계와 Geller가 사용하는 표적체계, 표적집단, 표적인구의 의미가 조금 다른 것으로 파악된다. Geller(1989)는 사회마케팅 이론에서 표적체계(target system)나 표적인구(target population)를 마케팅의 대상 전체를 일컫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반면, Herie와 Martin(2002)은 표적체계를 보급 과정을 추진하고 협력하는 포커스 집단과 같은 개념으로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Herie와 Martin의 표적체계는 Geller의 시장분할에서 언급되는 특정 하위집단 중 하나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자는 표적체계를 관련대상 전체로 볼 경우에는 보급 과정을 전체적 맥락에서 볼 수 있고, 포커스집단으로 한정할 경우에는 전략적인 면을 강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Herie와 Martin의 모델은 Rogers의 모델이나 Geller의 모델에서는 언급되지 않은 실천과정을 사전 단계로, 그리고 연구에서 실천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사후 단계로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본격적인 보급과 활용 전후 단계로서 이 실천 및 연구 과정들을 모델에 포함시킴으로써 보급, 실천, 연구간의 관련성을 강조하고, 전체적 맥락을 효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Herie와 Martin의 모델은 사회사업 영역에서 개발된 보급 모델이라는 점에서 뿐 아니라 실천-보급-연구-실천 간의 순환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 사례 : 성장기술 프로그램의 개요

본 연구를 통해 분석해 볼 사례는 본 연구자에 의해 개발되어 보급되어 온 성장기술 프로그램이다 (최명민, 2000). 따라서 여기서 간단히 이 프로그램의 개요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표 2>는 프로그램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한 것이다.

<표 2> 성장기술 프로그램의 개요

횟수	제목	목 표	내 용
1	첫 만남	집단 오리엔테이션 및 자기이해와 사교 기회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소개: 목표, 진행, 준수사항 · 집단 명칭 및 규칙 정하기 · 나를 알리는 광고 만들기 · 집단 성원 이름 외우기
2	이야기 1	의사소통의 의미와 방법 습득 및 상상력과 유대감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야기한다는 것: 이야기할 때의 느낌 · 들은 대로 전달하기: 6하원칙 문장 전달 및 확인 · 이야기 짓기: 한 사람이 한 문장씩 이야기 이어가기 (비디오 피드백)
3	이야기 2	다양한 의사소통 방법 및 이를 통한 대인관계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야기 쓰기: “내가...라면”라는 주제로 간단한 이야기 짓기 · 이야기 그리기: 앞사람의 그림 이어 그리기 · 이야기하기: 돌아가며 자신이 좋아하는 이야기하기
4	나의 몸 1	다양한 신체 이미지 수용 및 자기 신체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잡지에서 다양한 인물 찾기 · 나의 몸 그리기: 몸을 실제 크기로 그리고 안을 채우기 · 단정한 외모를 위해 할 수 있는 일
5	나의 몸 2	신체와 관련된 긍정적 피드백 경험 및 다양한 신체 이미지 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의 이미지 맞추기: 구성원의 외모 설명하는 글 맞추기 · 친구의 매력 찾아주기 · ‘다르게’ 생긴 친구에 대한 손가락 인형극 만들기 (비디오 피드백)
6	나는?	자기 장점과 가치 인식 및 성원간 이해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가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것 리스트 만들기 · 나의 장점 적어보기 · 좋은 신문: 자신과 관련된 긍정적 사건을 기사로 작성하기 · 좋아하는 문구 찾기: 개인의 가치를 담은 문구 선택하기
7	신뢰	신뢰와 불신에 대한 자기 감정 이해 및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뢰의 게임: 넘어지면 받쳐주기 · 안 보이는 사람 인도하기 (비디오 피드백) · 믿는 마음, 못 믿는 마음 그리기
8	경계 1	대인관계에서 경계의 개념 이해 및 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계의 개념 이해하기: 언어와 감정의 경계 열린 경계와 닫힌 경계 · 자신의 경계 그림으로 표현하기 · 상대에 따른 거리 측정하기: 가족, 친구, 교사 등을 적용

<표 2> 이어서

횟수	제목	목 표	내 용
9	경계 2	경계의 개념을 실생활에 적용하고 연습	· ‘가까워지고 싶을 때와 멀어지고 싶을 때’와 그 대처방법 · 역할극 : Mini-Social Skills Training (비디오 피드백)
10	가족 1	가족 상호관계 이해 및 가족과 관련된 고민을 나누는 안전한 장(場) 제공	· 가족관계를 끈으로 연결하여 상호작용 보기 · ‘우리 가족이 행복할 때와 불행할 때’ : 리스트 만들기 · ‘TV나 동화 속처럼 행복한 가족만 있는 것은 아니다’
11	가족 2	가족 성원 및 관계의 형상화와 자기 역할 인식	· ‘가족 상징’ 만들기 : 가족 성원을 이미지로 표현하고 각각의 관계를 다양한 선으로 표현하기 · 가족에 대한 나의 기대, 나에게 대한 가족의 기대 : 리스트 만들기
12	화내기	분노 감정을 인식하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표현방법 습득	· 화나는 것과 화내는 것 구분하기 · 화가 났던 경험 나누기 : 그 상황, 대처 방법 등 토의 · 화나는 감정에 대응하는 방법 배우기 : 역할극 (비디오 피드백)
13	느낌	자신과 상대의 감정을 인식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방법 습득	· 느낌 (마음)에 해당되는 단어 생각해 보기 · 느낌 표현하고 맞추기 게임 · ‘현재 나의 느낌’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기
14	비밀	비밀의 의미와 그 관리 방법 배우기 및 집단 응집력 향상	· 비밀의 의미와 이를 다루는 방법, 관련 경험 나누기 · ‘비밀의 상자’ : 상자를 만들어 비밀이 적힌 쪽지를 보관 · ‘또 하나의 비밀’ 만들기 : 집단에 공개 가능한 작은 비밀을 공유하고 집단의 새 비밀로 설정
15	친구 1	집단을 활용한 자기 모습 확인과 좋은 친구 되는 법 배우기	· 친구는 어떻게 사귀는 걸까? : 경험과 생각 나누기 · ‘친구들이 보는 나’ : <조하리의 창>을 응용한 자기 확인 · ‘좋은 친구, 싫은 친구’ : 각 항목에 대한 의견 나누고 나는 어떤 친구가 되고 싶은지 생각해 보기
16	친구 2	친구관계의 깊이에 따른 대처방법 이해 및 연습 기회 제공	· ‘여러 가지 친구’ : 관계의 깊이에 따른 친구 상황 예시 · 친구와 이야기하기 : Mini-Social Skills Training (비디오 피드백)
17	해결	종결 및 종결 이후 준비 및 자기 이해 향상	· 앞으로 되고 싶은 자신을 다각도로 표현 · ‘나의 채점표’ : 되고 싶은 나의 모습을 목표로 하여 현 단계를 표시하고 목표를 향한 도움어와 방해꾼을 각각 3가지씩 적어 붙이기
18	종결	종결에 따른 성취와 원만한 분리 경험	· 전체 세션 비디오 녹화 감상 · 수료증 수여 및 참여자에 대한 피드백 · 총 정리 및 축하 파티

각 세션 이후에는 순서대로 참가 아동에 대한 개별 부모면담과 정기적인 부모모임 및 교육을 병행한다. (더 자세한 프로그램 메뉴얼은 최명민(2000)를 참조할 것)

성장기술 프로그램은 학령기 아동의 대인관계를 비롯한 다양한 성장 및 발달 욕구에 부응하고자 1996년 정신보건세팅에서 개발되었다. 총 18회로 구성된 이 프로그램은 각 세션의 목적에 따라 인지

행동모델, 행동수정모델, 형태주의모델 및 해결중심적모델이 절충적으로 활용되었으며, 1회당 60분 가량이 소요되고 추가적으로 부모상담 및 교육에 30분 정도를 할애하도록 설정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의 한 종합병원 소아청소년 정신과에서 1996년 중반부터 약 3년 동안 7차에 걸쳐 30여명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며, 참가 아동들과 그 부모들을 대상으로 하여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여 그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최명민, 2000). 즉, 통제집단에 비해 실험집단의 전체 자기개념과 그 하위항목인 행동, 지적 및 학업상태, 신체적 외모 및 특성, 인기도 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향상이 검증되었고, 또한 참가자녀에 대한 부모평가에서는 사회적 위축, 성 문제와 정신병, 가정에서의 행동, 행동 평가, 전체 행동 점수의 측면에서 통제집단에 비해 실험집단의 문제행동 감소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본 연구자는 이 프로그램을 다양한 경로로 실천현장에 제공하려고 노력하였으나, 그동안의 보급노력이 적절했는지, 이 프로그램이 어떤 세팅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활용되고 있는지, 또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 체계적으로 조사한 바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기존 이론 및 모델에 의거하여 이 프로그램의 보급과정과 활용현황을 탐색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는 성장기술 프로그램의 개발 이후 어떻게 현장에 보급되고 활용되고 있는지를 탐색해보는 후속연구라고 할 수 있겠다.

3. 연구 목적 및 방법

1)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앞에서 살펴본 기존 이론 및 모델들을 중심으로 이제까지 진행된 성장기술 프로그램의 보급 과정을 추적 조사함으로써 보급과정의 적절성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사회복지 실천 프로그램의 보급과 활용을 위한 제언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현장 테스트를 통한 피드백을 수집하고 분석함으로써 프로그램의 활용현황을 파악하고 추후 프로그램의 수정보완을 위한 후속연구 자료를 확보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및 대상

본 연구의 주요 방법론은 추적조사(tracer study)이다. Rogers(1995)는 추적조사는 회고와 소급의(retrospective) 접근법으로서 그동안 새로운 지식이나 프로그램의 개발과정에서 연속적인 주요 이벤트와 활용결정을 재구조화하는 주요 방법으로 활용되어 왔다고 하였다. 실제로 전파이론과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이 추적조사의 형태로 진행되면서 개발과 적용의 긴 과정을 주요 단계들로 구분하고 각 특성들을 규명해 왔다. 앞에서도 밝혔듯이 본 연구도 보급과정과 활용현황을 소급하여 파악해 보기

위하여 과거 추적조사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를 통하여 새로운 모형을 제시하기보다는 기존 이론과 논의들을 통해 그 과정을 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Herie와 Martine(2002)의 연구-실천 가교모형을 주요 축으로 하고자 한다. 이 모델은 연구와 실천의 상호성을 강조하며 사회복지 영역에서 개발되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 및 프로그램 범주에 부합되기 때문이다.

추적조사의 자료는 주요 조사자 및 참가자들과의 개인적 인터뷰 내용이나 연구 출판물 및 기타 자금, 특허, 기관과 관련된 서식 등이다(Rogers, 1995). 본 연구에서도 연구자의 개인적 경험과 기록 및 출판물이 주요 분석 자료가 되었다. 그러나 성장기술 프로그램이 개인적 차원에서 개발 및 보급되었고, 보급 자체에 초점을 둔 연구로서는 본 연구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공식문건이나 선행 연구 자료가 부족하여 대부분 본 연구자 자신의 개인적 경험과 기록 및 판단에 근거할 수밖에 없었다. Rogers(1995)도 추적조사에서 접근 가능한 자료는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된 부분에 집중되어 있고, 전파와 적용 및 그 결과에 대한 자료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과정을 고찰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추적조사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현장의 피드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실천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의 대상이 된 곳은 본 연구자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 확인이 가능한 실천가들이 근무하는 기관 4곳으로서,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는 세팅의 일부라고 할 수 있겠다. 그 이유는 본 연구자가 이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과정에서 체계적인 모델에 의거하지 못하고, 개인이나 기관의 요청에 따라 메뉴얼을 보급하거나 학회발표, 학회지, 강의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였기 때문에 본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곳 전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지역사회 기관 3곳에서 본 프로그램을 시행한다는 정보를 얻고 확인했으나, 시행 담당자의 이동으로 인해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답변에 따라 이들은 제외되었다. 현장 피드백 수집을 위한 설문은 본 연구자가 직접 작성하였다. 설문을 배포하기 전에 전화를 통해 그 취지를 알리고, 전자우편을 통해 배부하고 답변을 수거하였다. 그리고 답변이 부족한 부분이나 의문사항은 별도로 전화 및 면담을 통해 보충하였다. 실천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는 2002년 5월부터 6월까지 2달 정도가 소요되었다.

요약하면 본 연구의 대상은 성장기술 프로그램과 이 프로그램의 보급 및 활용 과정에 관련된 본 연구자와 실천가들의 이었으며, 자료분석을 위하여 본 프로그램의 보급과 활용과정에 대한 기록, 설문, 면담이 활용되었으나, 추적조사인 관계로 객관적 자료의 확보나 대상자 파악에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3) 개념 정의

Herrie & Martin(2002)는 기술이전이라 할 때 여기에는 지식의 전파나 실천의 적용이 모두 포함된다고 하였다. 여기서 그 대상이 되는 혁신적인 것(innovation)에는 새로운 지식, 정보, 기술, 프로그램 등이 포함되는데(Martinez-Brawly, 1995), 이 중 본 연구에서 논의되는 보급과 활용의 대상은 프로그램이다. 즉, 이 연구는 본 연구자에 의해 개발된 성장기술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의 보급과 활

용을 탐색하는 것이므로, 여기서 분석의 대상이 되는 단위는 비교적 규모가 작은 임상실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단위가 되는 프로그램은 대규모라기보다는 소규모이고, 공적 차원이라기보다는 사적 차원이며, 정책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임상실천의 측면에 해당되는 것이다. 또한 이전(transfer), 전파(diffusion), 보급(dissemination), 채택(adoption), 적용(adaptation) 및 활용(utilization) 등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조금씩 다른 의미이지만 새로운 정보가 현장으로 확산되는 과정을 설명한다는 면에서 같은 선상에 있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중 본 연구에서는 보급과 활용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다. 기술의 경우에는 이전이, 이론이나 지식의 경우에는 전파가 더 많이 사용되듯이 프로그램에는 보급이라는 개념이 가장 자연스럽게 부합된다고 볼 수 있으며, 채택이나 적용보다는 활용이 현장에서의 응용상황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4. 연구결과 및 분석

1) 성장기술 프로그램의 보급과 활용에 대한 추적 조사

다음은 성장기술 프로그램의 보급과 활용과정을 추적조사하고 이를 기존 이론 및 모델에 의해 분석해 본 것이다.

(1) 실천

Herie와 Martime(2002)의 모델의 첫 단계인 이 과정은 프로그램 개발의 후속 과정으로도 볼 수 있겠다. 성장기술 프로그램의 실천 단계는 프로그램 개발 기관이자 본 연구자가 소속되었던 기관인 서울의 한 종합병원 소아청소년 정신과에서 1996년 중반부터 약 3년 동안 7차에 걸쳐 30여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시행했던 과정에 해당될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참가자들과 본 프로그램에 대상자들을 의뢰하였던 의료전문가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었으며, 참가자들을 상대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기도 하였다(최명민, 20002). 이에 따라 성장기술 프로그램의 시장성에 확신을 갖게 되면서, 더 넓은 실천현장에 보급하기로 결정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현장 보급은 이미 프로그램을 개발 단계에서부터 기획된 것이기도 하므로, 결국 이 실천단계는 이러한 목적을 1차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이었다고 볼 수도 있겠다.

(2) 시장기회 사정과 표적체계 규명

이 단계는 관련자들을 규명하고 이들과의 접촉을 통해 실천현장에서 얼마나 이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일지, 그리고 얼마나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인지를 고찰했던 과정에 해당될 것이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에서는 Herie와 Martin(2002)이 그랬듯이 시장평가를 위한 추진그룹이나 자문단을 구성하는 등의 체계적인 접근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또한 Geller의 모델 중 이 단계에 해당되는 시장분석이나

시장분할 작업도 계획적으로 진행되지 못 하였다. 그 이유는 배급 자체에 목적을 두고 조직 차원에서 계획적으로 진행된 Herie와 Martin(2002)의 경우나 마케팅 차원에서 제시된 Geller(1989)의 모델과 달리, 성장기술 프로그램은 본 연구자 개인 차원에서 개발되고 보급이 진행된 관계로 사전에 보급 관련자 및 협력자들을 규명해야 할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연구자 나름대로 이 프로그램이 활용될 수 있는 현장을 파악하고자 노력하였다. 본 연구자는 성장기술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 연구를 통해, 이 프로그램이 정신의료세팅에서 개발 및 실천 되었으나 특정 정신질환이 아닌 ‘대인관계’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유사한 문제를 지닌 클라이언트가 있는 세팅이라면 병원 세팅 뿐 아니라 일반 사회복지 현장에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제안한 바 있다(최명민, 2000). 따라서 일차적으로 이 프로그램의 실천에 관심을 가질 전문가로서는 의료 및 정신보건 분야와 아동 복지 분야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를 포함한 대인 전문가들일 것으로 파악하였다. 따라서 이들을 상대로 본 프로그램을 알리기 위한 작업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앞서도 지적하였듯이 이 대상들을 다시 구체적 대상으로 규명하고 세분화하여 전략적으로 구성하는 작업은 진행되지 못하였다. Geller(1989)는 이 과정이 이후 보급과정의 기반이 되는 단계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성장기술 프로그램의 경우 이 단계의 허술한 진행이 이후 보급과정의 한계를 가져오게 된 것으로 파악된다.

(3) 표적체계 참여시키기

Herie와 Martin(2002)은 이 단계가 Rogers의 도입결정과정 모델 중 관련자들에게 프로그램의 존재와 목적 및 유용성을 알리는 지식(Knowledge) 단계이자 Geller 모델(1989)의 초기 전략단계에 해당된다고 보았다. 또한 이 단계에서는 주요 이익관련자 및 여론 주도자와 파트너십을 형성하기 위하여 홍보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정부대표를 활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 위원들이 프로그램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성장기술 프로그램의 경우 우선 표적체계로 설정한 의료 및 정신보건 전문가들과 아동복지 분야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본 프로그램을 알림으로써 이에 반응을 보이는 구체적 대상들을 보급과정에 참여시키는 과업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1998년 제 17차 대한의료사회사업가협회 워크숍¹⁾과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한국여성정신의학회²⁾에서 본 프로그램을 알리는 기회를 가졌는데, 전자는 주로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으며, 후자는 정신과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또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과정부터 자문 역할을 수행했던 소아청소년 담당 의료진들이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확산하고 본 연구자와 실무자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였다(이후 본 프로그램을 채용한 기관을 추적한 결과, 이러한 경로를 통해 이 프로그램을 접한 기관이 있었음이 나타났다 - <표 3>의 C). 이는 본 프로그램은 1차적으로 사회복지사가 실천할 것을 전제로 개발되었지만,

- 1) 최명민(1998), “Growing Up Skills Program : 소아청소년정신과 외래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천” 제 17차 대한의료사회사업가협회 워크숍 자료집, pp.83-92.
- 2) 최명민·정유숙·홍성도 (1998), “소아청소년정신과 외래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행”,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한국여성정신의학회 1998년도 합동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포스터발표, p. 102.

표적체계에는 사회복지사 뿐 아니라 이들이 소속되어 있는 조직과 관련된 다른 전문가들도 포함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의료조직과 같이 사회복지의 2차 세팅인 경우에는 조직 운영권이나 프로그램 채택 결정권을 갖고 있는 대상들을 포함시키는 것이 보급에 유용할 것이다.

이렇게 본 프로그램 발표기회를 직접 접하거나, 또는 프로그램에 참가한 클라이언트들을 통해 구전(口傳)으로 이 프로그램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실무자들이 자발적으로 프로그램 보급을 요청해 오기도 했다. 이는 기존 모델들에서는 제시되지 않았던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본 연구자가 본격적으로 프로그램 보급을 시도하기 전에 현장 실천가들이 주도적으로 보급 대상자로서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고 주도적으로 보급 과정에 참여하기도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 외에 의도적으로 성장기술프로그램에 대한 여론을 주도할 집단을 형성하거나 적극적으로 이익관련자를 보급과정에 참여시키는 등의 전략적 과업은 진행하지 못하였다. 이는 이전 단계에서 그 대상이 구체적으로 규명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생길 수밖에 없는 결과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Herie와 Martin(2002)의 모델에 의거해 볼 때 성장기술 프로그램에서는 공급자만이 표적체계를 규명하고 이들을 참여시키는 과정을 주도했다고 볼 수 없으며,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게 된 수요자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겠다.

(4) 보급시도 및 현장 테스트

이 단계에서는 관련자들에게 적용을 권유하고 관심을 보이는 대상자들에게 훈련과 자문을 제공하면서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현장의 의견을 수집하기 위한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다(Martin et al. 1998).

① 보급시도

Thomas(1984)는 프로그램 전파를 위해서는 출판, 직원 훈련, 전문가 교육, 시연(demonstration) 등이 활용된다고 하였으며, Herie와 Martin(2002)은 워크샵, 집중훈련, 사후자문, 현장평가 등이 동원된다고 하였다. 성장기술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여기 제시된 보급방법들이 거의 활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99년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³⁾에서는 아동복지 분야의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개요와 더불어 프로그램의 실제 진행장면을 슬라이드 사진으로 자세히 소개하였고, 2000년에는 학술지인 한국아동복지학⁴⁾을 통해 프로그램의 구체적 매뉴얼을 제시하였다. 이는 구체적인 매뉴얼을 교육하고 제공하는 기회로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단지 프로그램의 존재를 홍보하는 발표들과는 차별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프로그램 보급을 요청한 실무자들에게 매뉴얼을 제공하거나 시연의 기능을 갖는 참관기회 제공하였으며, 실습생, 정신보건 수련생들을 프로그램 보조 진행자로 활용하고 훈련시킴으로써 프로그램의 내용과 진행방법을 전수하였다.

3) 최명민(1999), “학령기 아동의 사회성 강화를 위한 성장집단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99한국사회복지학회·한국아동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pp. 75-95.

4) 최명민(2000), “학령기 아동의 대인관계 향상을 위한 집단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한국아동복지학, 제9호. pp. 67-97.

그러나 Herie와 Martin(2002)의 OPTION 프로그램에서는 보급시도 전에 이미 이 대상자들을 확정하여 체계적으로 이를 전수한 반면, 본 보급과정에서는 훈련 참가자나 매뉴얼을 제공받은 실무자의 리스트를 작성하고 이들과의 연락체계를 갖추어 지속적인 실천 가이드를 제시하는 기본적인 장치 마련에 소홀하였다. 이는 이후 현장 피드백을 수집할 수 있는 기회와 프로그램 및 실천가들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에 제한을 가져오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② 현장 테스트

현장 테스트는 프로그램의 활용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가운데, 클라이언트와 실천가로부터 서비스의 질, 만족도, 다른 대상에게 권유하고 싶은 정도, 또는 기관 목적과의 적합성 등을 평가하는 것이다(Matrin et al, 1998). 그러나 성장기술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Herie와 Martine의 모델(2002)에서 보급 시도를 위해 구체적 대상을 설정하고 이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던 현장 테스트와는 다음과 같은 면에서 차이가 있었다. 첫째, 구체적 보급 대상을 정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현장 테스트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현장의 피드백을 얻기 위하여 보급 대상자 중 현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실천가들을 추적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반응을 조사한 것이다. 따라서 이 과정을 통해 규명된 4곳의 시행기관이 현재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는 전수(全數)인지, 또는 일부인지가 명확하지 않았다. 둘째, 이들을 대상으로 사후적인 평가가 시행됨으로써 지속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단일 시점인 2002년 5월을 기준으로 이전 과정을 평가한 것이다. 셋째, 현장 테스트의 대상인 실천가와 클라이언트 중 본 평가에서는 실천가들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클라이언트의 반응은 실천가를 통해 간접적으로만 반영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프로그램의 활용성에 대해 실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조사를 시행하였다는 점에서 이를 현장 테스트 단계에 해당되는 행보로 파악해 본 것이다.

(5) 피드백 수집 및 지속적 자문 제공(사후관리)

① 성장기술 프로그램에 대한 현장 피드백 내용

가. 대상자

다음 현장 피드백 수집대상이 된 실천가들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표 3> 대상자 개요

대상 항 목	A	B	C	D
소속기관	대학병원 정신과	대학병원 정신과	개인정신병원	개인정신병원
전문가 종류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언어치료사	사회복지사
자격증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성별	여	여	여	여
연령	31세	36세	31세	31세
보급 경로	프로그램 실습	프로그램 매뉴얼	병원장의 권유	보조치료자 경험
참관 여부	참관	불참	참관	참관
채택결정 사유	본인이 소속된 기 관에도 유용할 것으 로 판단하여	전임자의 업무를 지 속성 있게 수행하기 위해	담당 클라이언트들 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담당 클라이언트들 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진행기간 (2002.5기준) 및 차수	1998년~현재 7차	1996~현재 (96~99 전임자진행) 13차	2000~현재 8차	2001~현재 3차

본 연구자는 이 프로그램을 발표하면서 성장기술 프로그램이 정신과 세팅에서 개발되었지만 프로그램의 특성상 의료세팅 외에 일반 사회복지 현장에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제안했으나(최명민, 2000), 실제 그 적용을 확인할 수 있었던 세팅들은 모두 정신의료세팅이었다. 이는 본 연구자가 확인 가능한 범위의 한계일 수도 있으나, 프로그램이 개발된 배경이 실천현장에서의 활용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시행자 중 언어치료사가 있다는 것인데, 언어치료사는 소속 병원의 의사로부터 본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실시 권유에 따라 참관을 통해 프로그램을 시행하게 되었다고 했다(이 언어치료사가 소속된 기관에는 사회복지사가 없었다). 이는 의사집단을 표적체계에 참여시킨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또한 답변자들 중 3명이 직접 프로그램 실행에 참가하였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는 프로그램을 직접 시연하는 것이 실무자들의 프로그램 채택 결정에 효과적 이므로 유용한 보급 전략이라고 하는 주장에 부합하는 것이다(Bonnie et al. 1998).

또한 성장기술 프로그램이 개발된 1996년이래 최근까지 적용을 결정하고 계속 시행되고 있는 기관 들이 있다는 사실은 이 프로그램의 생명력을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나. 현장에서 사용되는 성장기술 프로그램의 명칭 및 목적

이 프로그램을 부르는 명칭은 각 세팅에 따라 다양하여 각각 ‘사회성 증진 훈련’, ‘소아성장집단 프 로그램’, ‘사회성 프로그램’, ‘친구사귀기 프로그램’ 등으로 호칭되고 있었다. 이런 용어로 호칭되는 이 유는 본 개발자가 처음 성장기술 프로그램의 그 명칭을 Growing Up Skills Program이라는 영어표현

을 사용했기 때문에 실천가들이 나름대로 국어 명칭을 붙이되, 사회성 강화나 대인관계 향상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본 프로그램이 원래 개발 의도대로 사회성 및 대인 관계에 중점을 두고 시행되고 있다는 것은 각 기관에서 이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목적에 대해 응답한 내용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4명의 응답자 모두 또래관계 형성 및 향상을 언급하였고 그 외에도 사회기술 습득, 자존감 향상,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이해 증진 등을 언급하였다.

다. 운영방식

운영방식은 각 기관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었으나 프로그램의 운용지침으로 제시된 것(최명민, 2000)을 대부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참조).

<표 4> 성장기술 프로그램의 현장 운영 현황

기 관		A	B	C	D
항 목					
시행간격 및 1회 소요시간		주 1회 60분	주 1회 (방학중 주2회) 90분	주 1회 60분	주 1회 80분
시행 장소		집단치료실	집단상담실	집단치료실	낮병원 회의실
보조진행자		사회복지전공 대학생, 대학원생자 원봉사자 1-2명	정신보건수련 사회복지사 2인, 실습 마친 사회복지 대학원생	언어치료사 1명	정신보건 수련 사회복지사 1인
대상자	성원 수	4명	4-6	4명	평균 5명
	주요문제	주의력 결핍, 공격성, 또래관계 부적응, 자신감 결여	왕따, 친구관계 형성 및 유지의 어려움	주의력 및 사회성 결핍	주의 산만, 또래와의 관계 문제
	연령	8-10세	저학년 8-10세 고학년 11-13세	8-11세	8-11세
	성비(남:여)	8:2	9:1	남아만	혼성
비용(1회당)	무응답	약 1만3천원	3만원	약 2만원	
매뉴얼 수정 및 변경 사항	같은 주제가 2회로 분할된 것을 통합하여 시행하고 신뢰, 비밀, 친구사귀기는 생략하고 있음. 구성되는 아동의 특성 따라 그때마다 수정	방학 중 참가자 기간 맞추기 위해 같은 주제가 2회로 분할된 것 중 3개를 통합하여 18회를 15회로 시행. 부모교육 구조화.	그림이나 글 표현이 어려운 아동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12회로 축소하고 게임과 레크리에이션 첨가	직접적인 대인관계를 위한 실제적 기술 습득을 돕기 위하여 5회 정도를 아동대상 사회기술훈련으로 대체하고 구조화된 부모교육 추가	

시행간격은 주 1회였으나 방학 중에는 2회씩 운영하는 곳도 있었는데,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라고 하였다. 운영시간은 기관에 따라 각기 달라서 60분에서 90분이 소요된다고

답변하였다. 이는 이 프로그램의 매뉴얼에서 1회당 60분 가량이 소요되고 추가적으로 부모 상담 및 교육에 2-30분이 소요된다고 한 것이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진행자는 주진행자 외에도 1명 이상의 보조 진행자가 같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진행자와 보조 진행자는 동종의 분야에 속하는 사람으로 구성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대상자 수도 개별적 접근이 병행될 수 있도록 4-5명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지침이 준수되고 있었다. 또한 성장기술 프로그램의 주요 목표가 대인관계 향상인 만큼 대상자들의 주요 문제는 또래나 친구 관계, 사회성 등이었으며, 주의력 결핍도 제시되고 있어 대부분이 처음 이 프로그램의 실천효과를 보고했던 대상들(최명민, 2000)과 유사한 대상들에게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연령에서는 4곳 중 3곳이 초등학교 저학년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 프로그램이 실천 현장에서 고학년에 비해 저학년에 더 많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는 본 프로그램의 개발 당시에는 학령기 아동 전체를 대상으로 했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저학년 아동들에게 더 적절한 프로그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성비는 남아가 월등히 높았는데, 이는 소아청소년 정신과를 찾는 아동의 비율 중 남아가 여아보다 많은 현상이나(이혜련·황순택, 1996), 주 대상인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아동 중 남아가 많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Goldstein & Goldstein, 1997).

클라이언트에게 부과되는 비용은 각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종합병원 세팅보다는 개인병원 세팅에서의 비용이 더 높게 책정되고 있었다. 이는 종합병원의 경우 수가 책정에 대한 제한이 더 엄격히 적용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비용의 고하가 진행자나 프로그램의 질(質)과 같은 일정 기준 없이 임의적으로 책정되고 있는 상황은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체 프로그램의 횟수는 각 실천 현장의 특성에 따라서 침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특징은 전체 프로그램의 횟수가 줄어든 것이다. 주 1회씩 진행할 경우 18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거의 5개월이 소요되므로, 참가자와 진행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대부분 2회로 나누어져 있는 주제는 하나로 통일하여 시행하고 있었다. 한편 그 기관의 특성에 따라서 게임이나 사회기술 훈련, 또는 구조화된 부모교육 등을 추가하기도 하였다. 이는 개발된 프로그램이 현장의 여건에 맞게 응용되고 활용되는 현상을 보여주는 예라고 하겠다. 또한 본 프로그램을 응용하여 ADHD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공식적으로 소개한 사례도 1건 찾아볼 수 있었다.⁵⁾

라. 프로그램에 대한 현장의 반응

조사대상자인 프로그램 진행자를 통해 성장기술 프로그램에 대한 진행자, 아동, 부모, 그리고 소속 기관의 반응을 알아보았다. 조사대상자가 소수이기는 하지만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5점 척도(5:매우 만족, 4:만족, 3:보통, 2:불만족, 1:매우 불만족)를 제시하였으며, 그렇게 평가한 이유를 서술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

5) 전혜성(2000), "ADHD 아동을 위한 사회사업서비스 실천", 2000년도 제19차 대한의료사회사업가협회 워크샵 자료집, pp. 167-190.

<표 5> 실천가에 의해 평가된 대상자별 프로그램 만족도

대상 \ 척도	5 (매우 만족)	4 (만족)	3 (보통)	2 (불만족)	1 (매우 불만족)
진행자	0	3	1	0	0
아동	2	1	1	0	0
부모	0	3	1	0	0
소속기관	2	1	1	0	0
합계(명)	4	8	4	0	0

진행자의 경우 만족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대상자와 동료 전문가(특히 참가 아동의 담당의사)들로부터 긍정적 피드백을 받는 점과 아동의 변화와 부모의 호응에 효과를 느낄 수 있어서 보람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산만한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이 힘들게 느껴진다는 어려움도 서술되었다. 진행자가 평가한 아동의 만족도를 비교적 높게 평가한 이유에 대해서는 아동들이 프로그램과 또래경험 자체를 즐기고 흥미를 느끼는 것으로 보이며 모임을 기다리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부모의 만족도에서는 자녀가 만족하는 모습에 대해 부모도 만족을 느끼거나 아동의 변화에 따라 부모 만족도에도 차이가 나타난다고 함으로써 자녀의 반응이 부모의 평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별도의 부모교육이나 상담에 대해서는 높은 만족을 보인다는 답변들은 이 프로그램과 더불어 부모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병행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소속기관에서는 이 프로그램이 정신과를 찾는 아동들의 사회성을 다루는 유일한 프로그램으로 인식되고 있고 사회복지사의 임상업무 강화할 수 있는 기제가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답하였다.

효과성 면에서는 응답자들 중 2명이 효과성 검증을 시행하여 한 곳에서는 질적 변화가, 또 한 곳에서는 양적 변화가 나타났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성 검증 결과가 공식적으로 보고된 바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6> 실천가들이 평가한 성장기술 프로그램의 강점과 약점

강 점	약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응이 취약한 아동의 핵심부분을 지원하는 점 · 임상 사회사업의 전문성을 반영한다는 점 · 구성원의 결속감, 친밀감, 긍정적 관계 및 긍정적 피드백 경험을 유도하는 기제 · 아동이 칭찬 받는 분위기에서 자기를 표현하고 또래관계를 익힐 수 있는 점 · 학령기 아동에게 보편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골고루 다루고 있다는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행자에게 요구되는 시간과 에너지가 많아서 연속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점 · 집단상황에서 표현된 것이 실제 가정과 학교에 이어지기에는 시행 기간이 짧은 점 · 구체적인 기술의 학습, 반복이 어려운 점 · 동적인 프로그램이 적은 것

진행자들에게 실천전문가로서 느끼는 본 프로그램의 강점과 약점을 질문하였는데, 그 답변 내용을 표로 정리해 보면 위의 <표 6>과 같다.

실천가들은 이러한 강점과 약점 제시에 이어 개선제안으로서 기존 프로그램에 신체적 움직임을 유도하는 오락이나 놀이와 같은 활동이 더 첨가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초등학교 고학년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후속 프로그램도 개발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이러한 평가를 종합해 볼 때 본 프로그램이 프로그램과 관련된 체계들 사이에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학령기 아동의 사회성 향상을 필요로 하는 실천현장에서 유용한 프로그램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단, 진행자인 사회복지사에게는 많은 에너지를 요구하는 프로그램이라는 면에서 심리적인 만족감 외에 이에 상응하는 현실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이 외에도 본 조사를 통해 도출된 다양한 피드백들은 앞으로 이 프로그램을 수정, 보완하는 연구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며 이를 통해 좀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프로그램으로 발전해 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단, 본 프로그램의 활용성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위해서는 각 세팅에서 효과성 검증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공식적으로 보고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② 지속적 자문제공(사후관리)

성장기술 프로그램의 경우 앞에서 지적했듯이 보급 과정 및 현장 테스트가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관계로 자문제공도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즉, 이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실천가들을 파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제를 수립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후관리는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던 세팅에만 제한되었다는 것이다.

제한적으로 진행된 사례들에서 사후관리 과정은 주로 전화, 메일, 또는 슈퍼비전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정기적으로 수행되기보다는 실천가들 쪽에서 먼저 필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에 진행되었다. 이는 이런 과업이 공급자에 의해 책임성 있게 진행되지 못할 경우 개인적인 또는 사적인 관계를 통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프로그램의 보급과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좀더 공식적인 통로를 통해 피드백을 받고 자문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양과 질을 풍부히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실질적으로 이 연구를 통해 확보한 실천가들과의 관계는 앞으로 유용한 사후관리 체계로 활용해 가야 할 것이다. 이는 프로그램 개발자의 책임이자 이를 직접 시행하는 실천가의 의무이며,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 궁극적으로 연구와 실천간의 괴리를 좁혀갈 수 있을 것이다.

(6) 연구

본 연구 자체가 Herie와 Martin(2002)의 모델 중 마지막 단계인 연구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이제까지의 보급과정의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현장의 피드백을 수집, 분석함으로써 성장기술 프로그램에 대한 이후 연구의 기초를 마련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성장기술 프로그램을 수정, 보완하여 좀더 현장성 있는 프로그램으로 재구성하고, 이를 다시 보급함에 있어서 기존의 문제점들을 되풀이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수 있는 기제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2) 조사결과에 대한 토의

이와 같이 성장기술 프로그램의 보급과 활용과정을 Herie와 Martin(2002)의 모델에 의해 분석해 본 결과, 성장기술 프로그램의 보급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 및 시사점들이 도출되었다.

첫째, 본 연구자는 성장기술 프로그램의 보급과정에서 연구결과를 실천에 적용하려는 의도는 갖고 있었지만, 전략적인 면을 강조한 Herie와 Martin의 연구-실천 가교 모델이나 Geller의 마케팅 모델에 비해 본 프로그램은 이를 현실적으로 실현하는 구체적인 기제가 부족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즉, 보급의 필요성이나 현장과의 상호작용의 중요성은 알고 있었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전략을 갖추지 못한 채, 그 과정이 막연하게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첫 번째 문제와 관련하여, 성장기술 프로그램의 경우 이런 전략적 기제가 부족했기 때문에 공급자가 보급과정을 계획성 있게 주도하지 못하고 수요자의 반응에 따라 즉흥적으로 대응하는 현상이 나타났던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표적체계를 구성하여 이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했던 Herie와 Martin의 모델과 비교해 볼 때, 성장기술 프로그램은 표적체계 설정도 수요자의 반응에 따라 이루어짐으로써 결국 사후에 관리의 문제점이 드러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실천가 및 수요자들이 수동적으로 보급을 받는 대상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보급을 요청하는 등 그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셋째, 전파모델의 모든 단계들이 중요하겠지만, 성장기술 프로그램의 보급과정을 추적하여 분석해 본 결과 Geller(1989)가 지적대로 초기 시장분석 및 분할(Herie와 Martin 모델에서는 마케팅기회 시장 및 표적체계 규명)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프로그램의 보급에서는 구체적 보급 대상을 파악하거나 설정하지 못한 채, 관련자라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보급노력을 진행하였던 것이 가장 큰 허점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이후 보급과정 및 적용대상 파악에 어려움을 가져와 결국 제한적인 현장 피드백 수집과 허술한 사후관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결국 성장기술 프로그램의 보급과정은 구체적인 이론적 틀 없이 개인적 판단과 당시의 상황에 따라 좌우됨으로써 그 과정이 허술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겠다. 따라서 앞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지식의 보급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연구결과의 효과적인 전파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단계별 과업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체계적으로 진행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때에 기존의 전파모델들은 유용한 틀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자의 견해로는 Rogers의 모델은 보급과 활용의 전략적인 면보다는 현장적용 결정과정 자체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모델로 유용성이 있으며, 이에 비해 Geller의 모델이나 Herie와 Martin의 모델은 전략적인 부분을 제시해 준다는 점에서 유익하다고 사료된다. 특히 Geller의 마케팅 모델에 기반을 둔 Herie와 Martin의 연구-실천 가교 모델은 현장테스트를 통한 실천과 연구의 순환성과 상호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복지 영역에서 더 가치가 크다고 생각된다. 단, Herie와 Martin 스스로 지적하듯이 이 모델에 따

라 전과과정을 진행하는 데에는 시간, 비용 등 많은 자원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개인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려는 대상에게는 적용에 한계가 있을 수 있겠다.

둘째, 보급과 활용과정은 설계와 개발 과정과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이므로, 초기 설계 및 개발과 정부터 보급과 활용 단계를 염두에 두고 진행할 때 그 전체 맥락이 일관성 있게 통합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개발과정을 거쳐 보급단계에 접어들어서 프로그램의 보급 대상을 고려하기보다는 프로그램 설계 단계에서부터 미리 전과까지 고려한다면, 좀 더 현실성 있는 프로그램으로 개발되어 보급의 효과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설계 및 개발과 보급 및 활용은 서로 분리된 과정이 아니라 유기적 연속성을 갖는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비록 여러 가지 제한점들이 있었지만 본 연구들 통하여 성장기술 프로그램의 실천가들의 피드백을 수집해 본 결과, 현장에서의 프로그램에 관한 유용성과 개선해야 할 사항들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는 좀더 현장의 욕구에 부응하는 프로그램으로 개선, 보완하는 후속 연구를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Herie와 Martin(2002)의 모델에서도 이 과정은 후속연구를 위한 자료수집 과정이자 전과를 위한 전략의 일부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반드시 이 모델에 따라 진행되지 않는 전과과정이라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현장 피드백 수집은 궁극적인 사회복지 서비스 개선을 위한 과정으로서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 교육 중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와 같은 교과목에서 보급과 활용에 대한 부분을 적극 포함하여 교육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발된 프로그램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보급하고 현장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과모델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대상 프로그램에 적절한 모델을 선택 및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모델들에 의거하여 보급노력을 시도함으로써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보급 모델들을 검증하고 적절한 모델로 개선 및 개발하는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그동안 사회복지 실천 분야에서 중요한 연구의 주제로 다루어져 온 프로그램 개발 그 이후의 과정에 초점을 둔 것이다. 즉, 개발된 프로그램이 어떻게 현장에 보급되고 활용되는지에 대한 기존 이론 및 모델들을 정리해 보고, 본 연구자에 의해 개발된 성장기술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실제 보급 과정과 활용 현황을 분석해 보았다. 이를 통하여 기존 이론 및 모델들에 의해 성장기술 프로그램의 보급과정의 문제점들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 사항을 제시할 수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성장기술 프로그램의 지속적 수정보완을 위한 제언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다. 첫째는 본 연구가 기존의 모델에 따라 보급이 진행된 과정을 분석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 판단에 따라 보급이 진행된 것을 이론적 분석들에 의해 추적 조사하고 분석하는 연구인 관계로, 기존 적용모델과 실제 진행과정이 잘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추적 조사 자체가 갖는 한계점으로서 해당 자료가 경험적 성향을 지니

므로 객관적 근거가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본 연구가 성장기술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성에 대한 연구 이후 첫 연구인 관계로 그 사이에 진행된 과정에 대해 공식적으로 발표된 문헌이 없다는 점 또한 객관적 근거 부족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이 연구는 성장기술 프로그램의 연구와 실천의 통합을 궁극적 목표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보급과 활용에 대한 분석, 즉 실천의 분석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이 다시 연구로 통합되는 프로그램 및 보급 전략의 재구성까지는 다루어지지 못했다. 이는 후속 연구를 통해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라고 하겠다.

이와 같은 한계점들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사회복지 임상실천에서 프로그램 개발에 집중된 초점을 현장 보급과 활용으로 넓혔다는 데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즉, 프로그램 개발과 1회적 효과성 입증 결과의 발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보급과 활용 과정을 거치며 현장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탐색함으로써 좀 더 실천현장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으로 개발해 가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 것이다.

앞으로 사회복지 분야에서 이와 같은 임상실천 프로그램 뿐 아니라 좀 다양한 규모의 연구결과, 개입방법 및 새로운 지식 등의 보급과 활용에도 관심을 가짐으로써 연구와 실천의 통합을 위한 방법을 모색해 가길 기대한다. 특히 아직까지 외국에서 개발된 이론이나 모델, 또는 프로그램들을 받아들이는 입장에 있었던 우리나라에서는 보급과 활용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함으로써 외국으로부터 도입된 내용들이 어떻게 우리 현실에 보급되고 적용되는지를 밝히며 지속적으로 우리 상황에 맞게 수정하고 적용해 가는 노력이 따라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보급과 활용에서, 지적 권한이나 소유권에 대한 인식과 논의도 앞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 고 문 헌

- 양옥경. 2000. “한국 임상사회복지실천의 효과성 연구 경향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42권, pp. 225-253.
- 이혜련·황순택. 1996. “소아 청소년 정신과 외래환자의 임상적 고찰”, 『소아청소년정신의학』, 제7권, 1호, pp. 14-21.
- 전혜성. 2000. “ADHD 아동을 위한 사회사업서비스 실천”, 2000년도 제19차 대한의료사회사업가협회 위크샵 자료집, pp. 167-190.
- 최명민. 1998. “Growing Up Skills Program : 소아청소년정신과 외래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천”, 제17차 대한의료사회사업가협회 위크샵 자료집, pp. 83-92.
- 최명민·정유숙·홍성도. 1998. “소아청소년정신과 외래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행”,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한국여성정신의학회 1998년도 합동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포스터발표, p. 102.
- 최명민. 1999. “학령기 아동의 사회성 강화를 위한 성장집단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99한국사회복지학회·한국아동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pp. 75-95.
- 최명민. 2000. “학령기 아동의 대인관계 향상을 위한 집단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한국아동복지학』, 제 9호, pp. 57-97.
- Goldstein, S. & Goldstein, M. 1997. 『과잉운동증』, 1998, 김봉석 외 역, 하나의학사.
- Backer, T. E. 1991. “Research utilization and managing innovation in rehabilitation organizations”, *Journal of Rehabilitation*, 54, pp. 18-22.
- Backer, T. E. & Marston, G. 1993. Partnership for a drug-free America : an experimental in social marketing, in Backer, T. E. & Rogers, E. M.(Eds) *Organizational Aspects of Health Communication Campaigns : What's work?*, Newbury Park : Sage.
- Biermann K. L. & Montminy H. P. 1993. “Developmental issues in social skill assessment and intervention with children and adolescents”, *Behavior Modification*, 17(3), pp. 229-254.
- Chatterjee, P. & Ireyes, H. 1981. “Technology transfer : Implications for social work practice and social work education”, *International Social Work*, 24, pp. 14-22.
- Epstein, I. 1996. “In quest of research based model for clinical practice : Or, why can't a social worker be more like a researcher?”, *Social Work Research*, 20, pp. 97-100.
- Fine, S. H. & Fine, A. P. 1986. “Distributing channels in marketing social work”, *Social Casework*, 67, pp. 227-233.
- Fischer, J. 1993, “Empirically-based practice: The end of ideology?”, *Journal of Social Service Research*, 18(11), pp. 19-64.
- Geller, E. S. 1989. “Applied behavior analysis and social marketing : An integration for environmental preservation”, *Journal of Social Issues*, 45(1), pp. 17-36.
- Herie, M. & Martin, G. W. 2002. “Knowledge diffusion in social work : A new approach to bridging the gap”, *Social Work*, 47(1), pp. 85-95.
- Kotler, P. & Zaltman, G. 1971. “Social marketing : An approach to planned social change”, *Journal of Marketing*, 35, pp. 3-12.
- Martine, G. W., Herie, M. A., Turner, B. J., & Cunningham, J. A. 1998. “Research report : A social

- marketing model for disseminating research-based treatments to addictions treatment providers", *Addiction*, 93(11), pp.1703-1715.
- Martinez-Brawly, E. E. 1995. "Knowledge diffusion and transfer technology : Conceptual premises and concrete steps for human services innovators", *Social Work*, 40(5), pp.670-682.
- Rehr, H. Morrion, B. & Greenburg, R. 1992. "Research on utilization and application of findings", *Research on Social Work Practice*, 2, pp.358-363.
- Rogers, E. M. 1983. *Diffusion of innovation*, New York : Free Press.
- _____. 1995. *Diffusion of innovation*, New York : Free Press.
- Rothman, J. 1980. *Social R & D : Research and Development in the Human Services*, Englewood Cliff, NJ : Prentice-Hall.
- _____. 1983. *Marketing Human Service Innovation*, Beverly Hills: Sage Publications.
- _____. & Thomas, E. J. 1994. "An integrative perspective on intervention research", in *Intervention Research: Designing and Development for Human Service*, Rothman, J. & Thomas, E. J Eds., pp.3-23. New York : Haworth Press.
- Stoner. 1986. "Marketing of Social Service Gains Prominence in Practice", *Administration in Social Work*, 10(4), pp.41-52.
- Thomas, E. J. 1984. *Designing Interventions for the Helping Profession*, Beverly Hills : Sage Publications.
- Turner, B. J., Martin, G. W. & Cunningham, J. A. 1998. "The effectiveness of demonstrations in disseminating research-based counseling programs", *Science Communication*, 19(4), pp.349-365.

Dissemination and Utilization of Growing-up Skills Program

Choi, Myung-Min
(Lecturer, Ewha Womans University)

While many social work studies has focused on the development of practice intervention and demonstration of the efficacy, little attention has been given to the way how the results can be disseminated and utilized in practice area. But attempts to bridge the research-practice gap empathize importance of dissemination and utilization including knowledge utilization, innovation diffusion, information dissemination, program replication, and technology transfer etc.

In this recognition, this study that focused on the process after development of program tried to search and analyze the real disseminating process and utilization state with applying Growing-up Skills Program(GUSP) developed and disseminated by this researcher. For the purpose, theories and models for program diffusion were reviewed, and dissemination & utilization of GUSP was analyzed on the 'Herie & Martin's model' with retrospective perspectives.

Through this tracer study, these were confirmed or founded as problems of GUSP in disseminating process : lack of specific strategy for the dissemination ; unplanned coping due to little preparation ; and unclear and insufficient understanding of the target system in the beginning stage of dissemination. And followings are suggested for the improvement of social work program dissemination & utilization in the field: to conduct diffusion process on the basis of a proper model; to consider integrative relationship between D&D and dissemination & utilization ; to endeavor for collecting feed back from the field ; and to reinforce social work education and study related to innovation diffusion.

These results showed importance of dissemination & utilization in social work and utility of GUSP despite of several limitations. More concerns of dissemination & utilization are needed for the integration of research and practice in Korean social work.

Key Word : dissemination, utilization, Growing-up Skills Program, feedback from the field.